

「랏셀」의 哲學 及 社會改造論 (五)

저자미상

『何時이던지 有益한 政治의 理論을 探究함에 當하여 缺한 바는 『理想郷』의 發見이 아니요, 가장 조흔 連□力法을 發見하는 일이다.

『무릇 個人生活의 統一에 必要한 것은 먼저 人間의 所有한 모든 創造的 衝動을 具體化하는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또 人間의 教育은 이 衝動을 誘出하여 이것을 強化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思하건던 社會의 統一에 必要한 것은 社會의 全 □이 個人의 滿足을 援助하여줌 社會로써 그것이 반드시 自覺的 行動은 아니라 하드라도 만흔 男女의 만흔 衝動이 었던 共通한 生活, 었던 上同한 目的에 向하여 互相働作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生命力으로부터 生하는 活動力의 多數는 二個의 部分으로부터 成立한 것이다. 그 一은 創造的인데 이것은 自己自身の 生活 及 갖튼 種類의 衝動을 有한 他人이 生活□ 助長하는 것이요, 또 그 一은 所有的인데 이것은 異한 種類의 衝動 又は 狀態를 有한 었더한 生活을 妨害하는 것이다. 이러한 理由로부터 그 自身이 가장 生活을 有利하게 하는 것이 도로혀 生活에 逆動하게 된다. 例하면 十七世紀의 淸敎主義가 일즉이 英國에 行한 바와 갓트며 或은 國家主義가 現在 全犯罪巴에 行함과 如한 것이다. 그리하여 生活力은 鬪 爭鬪와 □□로 되야서 生活力을 살리게도 하며 죽이게도 한다.

戰爭은 그 最初 一國民의 生活을 統一하나 世界의 渾一과 □和를 妨害한다. 그것이 現時의 戰爭(卽 □□戰爭을 指한다.)와 갓치 □烈하게 되야온 것이다. 終에는 그 國民로 分裂하지 아늘 수 업게 된다. 今□의 戰爭은 文明的 □間의 關係가 侵略과 □疑로 支配되는 동안은 社會의 生活을 安全하게 統一을 □할 수 업다는 것은 事實이 明示하였다. 그리하여 이 理由에서 참 有力한 改革運動은 國家的이 아니면 아니 될 것이다.』

『무릇 人間의 衝動과 慾望과는 恒常 創造的인 것되 所有的인 것에 分類할 수가 있다. 卽 우리의 活動力이 잇는 것은 아직 存在하지 아니한 것은 創出코져 하는 方面에 向하여 또 었더한 活動은 일즉이 存在하여 잇는 것을 □□ 又は 維持코져 하는 方面에 向하여 있다. 代表的 創造의 衝動은 藝術家의 衝動이다. 代表的 創造의 衝動은 財産의 衝動이다. 그리하여 創造의 衝動이 가

장 大部分을 占하고 所有의 衝動이 가장 小部分을 占하고 잇는 것이 가장 善한 生活이다.

卽 가장 善한 制度는 最大의 創造性과 最小의 所有性과 二分한 制度이다. 所有性은 侵略的도 되고 防制的도 된다. 刑法은 恒常 防制的이 되고 犯罪는 恒常 侵略的이 된다.

이제 刑法은 犯罪처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게 되며 또 防禦的 所有性은 侵略的 所有性이 存在한 以上에는 遏지할 수 업슬 것이다. 그러나 가장 純粹한 防禦的 所有性의 形式에 잇서□도 그것 自身은 決코 □□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 所有性으로써 萬一 強烈하게 된다 하면 忽然히 創造衝動에 敵對하게 된다. 무엇보담 人間의 自由로운 高尚한 生活을 防□하는 것은 所有라는 先入見이다. 그리하여 國家와 財産과는 그 所有性의 偉大한 體現이다. 그러한 것이 生活에 逆行하여 戰爭을 起케 하는 것은 正히 이러한 理由인 事實이다.』

『무엇 所有는 무엇이든 조흔 것을 占有하고 又是 保持하는 것을 意味하였스나 그것은 他人이 그 享樂을 바듬에 妨害하는 것이다.

그런데 創造는 世界에 무엇 조흔 것을 加하는 것이다. 그썩까지 遏더한 사람이던지 아직 그것을 享樂하지 못한 것이다. 思하건던 世界의 物質的 財貨는 스스로 사람 사람 사이에 分配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善良한 社會에 잇서서는 遏더한 超個人的 不公正의 原理에 從하여 □□한 妨害的 所有기 업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